

관계부처 합동 「RE100 산업단지 추진 TF」 발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관계기관 합동 「RE100 산업단지 추진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RE100 산업단지는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입주 기업의 RE100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산업단지로서,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국정과제이다.

동 TF는 산업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 교육부, 해수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여하는 회의체로서 부처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업 지원, ▲산단 인프라,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연말까지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유치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관련 특별법 제정 방안도 동 TF에서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RE100 산업단지는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과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을 연결지어 지역경제 부흥으로 귀결될 중요한 과제”라며,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결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RE100 산업단지 추진단	책임자	과 장	양정화(044-203-4120)
		담당자	사무관	정유나(044-203-4123)
	입지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재석(044-203-4430)
		담당자	사무관	김창겸(044-203-4438)